

# 하상주보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4년 10월 27일  
제2024호

주임 신부: 배하정 다니엘

보좌신부: 이태섭 요한사도

사도 회장: 안민철 미카엘

연령 회장: 홍의훈 요셉 (703 966 8206)

사무실: 703 968 3010

팩스: 703 968 3013

주소: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이메일: sthasang@gmail.com

기도로 힘을 얻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리라.”(묵시 21,5)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눈먼 이가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마르 10,51-52)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 엘 그레코

## 연중 제30주일 (나해)

제 1 독서 예레 31,7-9 | 눈먼 이와 다리저는 이를 위로하며 이끌어 주리라.

화답송 시편 126(125) | ◎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제 2 독서 히브 5,1-6 | 너는 멜키체덱과 같이 영원한 사제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 주셨네.◎

복음 마르 10,46ㄴ-52 |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 무렵 <sup>46</sup>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군중과 더불어 예리코를 떠나실 때에, 티매오의 아들 바르티매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sup>47</sup>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기 시작하였다.  
<sup>48</sup> 그래서 많은 이가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sup>49</sup>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너라.” 하셨다.  
 사람들이 그를 부르며,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하고 말하였다.  
<sup>50</sup> 그는 겹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sup>51</sup>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눈먼 이가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sup>52</sup>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

11월 1일(금) 모든 성인 대축일

이 날은 하늘 나라의 모든 성인을 기리는 대축일로, 하느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성인들의 모범을 본받고자 다짐하는 날이다. 특히 전례력에 축일이 따로 지정되지 않은 성인들을 기억하고 기린다. 이 축일은 동방 교회에서 먼저 시작되어 609년 성 보니파시오 4세 교황 때부터 서방 교회에서도 지내게 되었다. 처음에는 5월 13일이었는데, 9세기 중엽에 11월 1일로 바뀌었다. 교회는 이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 뒤의 새로운 삶을 바라며 살아가도록 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 주고, 우리와 천국의 모든 성인 사이의 연대성도 깨우쳐 준다.

☆모든 성인 대축일 미사: 11월 1일(금) 오전 11시, 오후 7:30

†복음 묵상

독서와 복음을 함께 읽다 보니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1독서에서 “주님, … 구원하소서!”(예레 31,7)라고 외치라고 되어 있는데, 복음에서는 바르티매오가 과연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마르 10,47)라고 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이가 그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였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그를 꾸짖었던 이들은 그가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였고, 또 어찌면 너무 많은 이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며 외쳐댔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상대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에서는, “이렇게 외치며 찬양하여라.”(31,7)라고 말합니다.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것이 자신을 도와주시기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원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찬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기에, 그분께 구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분을 향하여 외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에게 그러한 신앙을 바라셨습니다.

복음에서도 바르티매오는 예수님께 자비를 청하며 외쳤는데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마르 10,52)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꾸짖는데도 그가 외쳤던 것이 그의 찬양이고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러오라고 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그가 자신의 입으로 치유를 청하게 하심으로써, 그의 믿음을 드러내십니다. 바르티매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쳐 주실 수 있음을 의심 없이 믿고, 이로써 그를 꾸짖던 사람들 앞에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다시 찬양합니다. (안소근 실비아 수녀)

## 11월 위령 성월

교회는 해마다 11월 2일에 기념하는 '위령의 날'과 관련하여 11월 한 달을 '위령 성월'로 지내고 있다. 위령 성월은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특별히 기억하며 기도하는 달이다. 따라서 신자들은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친지들의 영혼은 물론 죽은 모든 이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한다. 교회는 이 시기에 특히 연옥에서 단련받는 영혼들을 위하여 많이 기도하기를 권하고 있다.

위령 성월은 998년 무렵 베네딕도회 소속의 프랑스 클뤼니 수도원에서 11월 2일을 위령의 날로 정하여 연옥 영혼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한 데서 비롯되어 전 세계 교회로 확산되었다.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과 '모든 성인의 통공(通功)'이라는 교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 오는 공동체이다. 이 공동체의 주인이시며 시작도 끝도 없으신 하느님 앞에서 시간은 무의미하다. 곧 세상을 떠난 이들도 이 공동체의 일원이며, 살아 있는 이들도 동일한 구성원이다.

이렇게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으며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라는 유대감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한다. 또한 천국의 성인들도 이 세상의 우리를 위하여 하느님께 간구한다.

위령 성월인 11월은 여기저기 곱게 물든 단풍마저 떨어져 나뒹구는 깊은 가을철이다. 또한 전례력으로도 연중 시기의 마지막에 속하므로 미사 독서에서는 이 세상의 종말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듣게 된다. 위령 성월은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한편, 우리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조용히 묵상하는 은총의 시기이다.

### 복음과 성화

예수님께서서는 전도 여행 중에 길에서 소경을 만났는데 그는 예수님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손으로 소경의 눈을 어루만지시며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다. 이 작품에는 병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자비로운 모습과 소경의 간절한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다.



<소경의 눈을 뜨게해주신 예수님>, 엘 그레코

예수님께서서는 이 기적을 통하여 당신이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참빛이심을 알려주셨다. 또한 자비로운 하느님의 나라가 도래하였음을 알려주셨다. <정웅모 신부의 복음을 담은 성화>

## 위령성월 기도

시편 129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주님, 제 소리를 들어주소서.
- 제가 비는 소리를 귀여겨들으소서.
- 주님께서서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 오히려 용서하심이 주님께 있사와 더 더욱 당신을 섬기라 하시나이다.
- 제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으며 당신의 말씀을 기다리나이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제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
- 주님께는 자비가 있사옵고 풍요로운 구속이 있음이오니
- 당신께서는 그 모든 죄악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리이다.
- † 기도합시다.
- 사람을 창조하시고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바라던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소서.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 †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 †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 ◎ 아멘.



**1 대부모 / 대자녀 프로그램**

- 일시 : 10월 27일(일) 오전 11:15 (친교실 A-1)
- 예비자들과 함께 친교 모임을 갖는 시간입니다. 점심 식사 제공됩니다.
- 11월 10일(일)에 세례받는 예비자분들을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양윤정 카타리나 (703) 865-1026

**2 루카회 월례 회의 (60대 남녀 교우)**

- 일시 : 10월 27일(일) 오전 11:30 (B-2)

**3 모든 성인 대축일 미사**

- 일시 : 11월 1일(금) 오전 11시, 오후 7:30
- “모든 성인 대축일”은 의무 대축일입니다. 의무 대축일 미사에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4 위령의 날 미사 안내**

- 일시 : 11월 2일(토) 오전 6시
- 오전 6시 미사는 위령의 날 첫 번째 미사로 봉헌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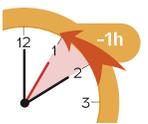
**5 11월 첫 토요일 성모 신심 미사 안내**

- 일시 : 11월 2일(토) 오전 10:30
- 11월 첫 토요일 성모 신심 미사가 봉헌됩니다. 교우분들의 많은 참례 바랍니다.

**6 구역 임원 교육**

- 일시 : 11월 3일(일) 오전 11:30 (B-1,2)

**7 Day Light Saving Time 종료 (11월 3일)**



- 11월 3일(일)부터 오전 2시가 오전 1시로 변경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대통령 선거일 - 친교실 사용 금지 (11월 5일)**

- 11월 5일(화)은 미국 대통령 선거일로, 성당 친교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선거단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화요일 레지오 모임, 성령 기도회, 단체부 모임은 하상관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9 11월 목요일 신심 기도회**

- 일시 : 11월 7일(목) 오후 7:30 (성당)
- 11월 목요일 신심 기도회가 있습니다.
- 강사 : 이태섭 요한 신부님

**2025년 매일미사 책 주문받습니다.**

- 신청 및 문의 : 성물부

**10 묘지 합동 위령 미사**

- 일시 : 11월 9일(토) 오전 10:30 (묘지 축성) 오전 11시 (미사)
- 묘지 축성을 원하시는 분은 10:30분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 장소 : Fairfax Memorial Park
- 11월 위령 성월을 맞이하며 Fairfax Memorial Park 에서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기억하며 합동 위령미사가 봉헌됩니다.
- 위령미사 예물은 사무실과 현장에서 받습니다.

**11 주일학교 학생 전례 봉사**

- 주일 오후 2시 미사 전례 봉사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 대상 : 6학년(CCD) - 고등부(CYO)
- 문의 : 임형준 이레네오 교감 (703) 624-8196

**12 성 요셉 아버지 학교 11월 특별 강좌**

- 일시 : 11월 3일(일), 11월 10일(일) 오전 11:30 (B-2,3,4)
- 주제 : Well Living & Well Dying
- 대상 : 액티브 시니어와 죽음 준비 교육에 관심 있는 50대 중반 이상의 모든 신자
- 문의 : 김 베로니카 (703) 864-1236

내사랑 ♥ 한국

## 고국 성지 순례

- 내년에 고국 성지 순례를 떠나려 합니다. 준비할 사항들이 많기에 미리 공지해 드리고 순례할 분들을 모집합니다.
- 일시 : 2025년 9월 15일(월) - 9월 26일(금)
- 모집 마감 : 12월 1일(일) 교중 미사 후까지
- 신청 : 사무실(추후에 일정과 순례 금액 공지 예정) 신청은 선착순으로, 인원은 최소 35명에서 최대 70명 예상
- 신청 방법 : 순례를 희망하는 사람은 이름과 연락처를 적고 접수하면 나중에 개인별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순례 일정**

- 9월 15일(월) - 18일(목) 배론성지 (피정, 친교, 순교자 현양 대회 참석)
- 9월 18일(목) - 20일(토) 경상도 지역 성지
- 9월 20일(토) - 22일(월) 전라도 지역 성지
- 9월 22일(월) - 24일(수) 충청도 지역 성지
- 9월 24일(수) - 26일(금) 서울·경기 지역 성지

**13 파티마 세계 사도직 33일 봉헌 신청 접수**

- 봉헌을 위한 33일간의 준비와 봉헌식에 참석하실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 오전 8시/10시, 오후 2시 미사 후 (친교실)
- 준비 기간 : 11월 6일(수) - 12월 8일(일)
- 봉헌식 : 12월 8일(일) 오후 7시(성당)

### 감사드립니다

미래를 위한 5K 행사 결과 (10월 19일)  
총 254명 참여, 청소년 기금 \$2,369 모금

본당 미래를 위한 5K 행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과 행사를 준비한 복지부와 봉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중미사 예물봉헌	
10/27 이번 주	비엔나 2구역
11/03 다음 주	스프링필드 구역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4년 10월 20일(연중 제29주일)	
봉헌금	\$ 7,350.00
교무금	\$ 3,860.00
교무금(신용카드)	\$ 6,350.00
감사 헌금	\$ 555.00
2차 헌금	\$ 3,530.00
온라인 봉헌	\$ 2,030.00
합계	\$ 23,675.00

버지니아 성정바로 성당 제공 **Cox Ch. 30, 830, 1030**  
**KACM TV 하이라이트** **Fios Ch. 30**

- 2024년 10월 31일(목) 오후 5:00 - 6:00  
 2024년 11월 01일(금) 저녁 8:00 - 9:00  
 2024년 11월 03일(일) 오전 6:00 - 7:00
1. 주일 강론
  2. 특집 다큐 : “선물” - 한국 천주교회 첫 순교자 유해발굴 보고서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 8:00 AM • 10:00 AM(교중미사) • 2:00 PM(학생미사) • 5:00 PM(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7:30 PM	
월, 목, 토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